

##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 *Le Maître Ignorant*』에 나타나는 앎과 해방의 가능성 그리고 정치적 주체의 문제\*

박 주 원\*

### • 요 약 •

이 연구는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에 대한 기존의 학문적 논의들이 주로 교육학 분야에서 제출된데 대해 물음을 제기하고, 이 텍스트가 가지는 의미를 정치적 주체형성의 문제로 재해석 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무지한 스승』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앎의 가능성이 단순히 인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우연적이고 특정한 정치 사회적 맥락과 국면에 기반하고 추동되는 ‘의지’의 실천 과정임을 드러내 보이고, 그러한 과정이 정치적 해방의 가능성과 연결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특히 이 글은 『무지한 스승(1987)』이 『프롤레타리아의 밤(1981)』과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1990)』 사이에서 이를 연결하는 텍스트로 바라보고, 그들 사이의 관련성 속에서 그 의미를 구명해보고자 했다.

이 글의 검토를 통해 보았을 때, 앎의 가능성 속에서 주체의 형성은 언제나 기성의 질서나 체계와의 우연한 부딪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에게 앎의 해방은 자신에게 우연히 부딪힌 사회적 논리들에 대한 반발 속에서, 또한 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고 꿈꾸려는 의지 안에서 움트며, 그러므로 언제나 당면 사회의 설명의 논리와 체계, 기성의 척도와 기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촉발되고 생성되며 작동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무지한 스승』은 정치적이다.

지식을 계몽의 과정으로 보는 관념은 우리 사회에 여전한 현실이다. 그러나 만일 랑시에르의 제안처럼, 교육적 실천이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앎의 과정이 아니라 자신이 부딪힌 -우연적- 상황과 맥락에 함축되어 있는 관념과 질서, 기준과 척도에 대한 반발이라면, 그리고 나아가 그와 전혀 다른 질서와 관계에 대한 꿈이라면, 무지한 스승은 무엇보다 정치적 실천을 불러일으키는 자이다. 우리 사회의 후학들에게 필요한 스승은 스스로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도록 촉발하고, 삶의 도처에 함축되어 있는 기준과 척도, 즉 법과 질서와 가치를 거부하려는 그들의 의지와 용기를 격려하며, 다르게 살아보고픈 그들의 욕망을 새로운 가치로서 존중하고 격려하는 자임을 이 책은 말해주고 있다.

\* 이 연구는 2021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제어 : 자크 랑시에르, 무지한 스승, 앎, 해방, 주체화, 의지, 우발적 실천

## I. 서론: 랑시에르 사상에서 『무지한 스승』의 위치와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이 글은 랑시에르(J. Rancière)의 『무지한 스승 *Le Maître Ignorant*』과 관련한 기존의 해석들이 주로 교육론의 관점이나 지적 평등 혹은 앎의 주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온데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무지한 스승』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앎의 가능성이 단순히 인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우연적이고 특정한 정치사회적 맥락과 국면에 기반하고 추동되는 ‘의지’의 실천 과정임을 드러내 보이고, 그러한 과정이 정치적 해방의 가능성과 연결되는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앎의 해방이 가지는 의미를 정치적 주체형성의 문제로 재해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랑시에르의 사상에서 ‘주체화(subjectivation)’의 문제는 정치의 급진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준거로 논의된다.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되는 주체 개념과 형식을 전복하여 ‘주체화’라는 실천적 과정으로 재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사유의 중심축이기 때문이다.<sup>1)</sup> 그의 전체 저술 가운데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는 특히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무지한 스승』, 『감성의 분할-미학과 정치』, 『미학 안의 불편함』, 『문학의 정치』, 『역사의 이름들』 이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텍스트로 거론된다.

랑시에르는 알튀세르(L. Althusser)와 결별한 이후 역사적 준거 속에서 주체화에 대한 사유를 발전시켜 갔는데, 1970년대 초반부터 19세기의 오래된 문서고를 뒤지며 아카이브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일단의 역사가와 철학자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논리적 반역』의 저널 작업으로 나타났다. 19세기 프랑스 노동자 운동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의 성과는 그의 『프롤레타리아의 밤(1981)』이라는 저서로 제출되었다. 『프롤레타리아의 밤』에서 그가 주목했던 것은 지배 담론의 질서 안에서 노동자

1)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서문의 다음과 같은 언명은 이를 잘 나타내준다. “정치란 공동체를 지도하는 기술이 아니라 불일치하는 인간 행동 형태이며 인간 집단의 결집과 명령을 작동시키는 규칙들에 대한 예외이다. 민주주의는 통치 형태도 사회적 삶의 방식도 아니며, 정치적 주체들이 존재하기 위해 거치는 주체화 양식이다....나는 「정치, 동일시, 주체화(1991)」에서 공동체를 경영하는 기술인 치안과 평등 전체를 현실화하는 것인 정치를 구별함으로써 바로 이 분리를 정초하고자 했다....정치적인 것(*le politique*)은 치안과 정치라는 두 원리가 충돌하는 장소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와 맺어지는 형태들의 체계이다.” 자크 랑시에르 지음,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서울: 도서출판 길, 2008, p.17.

의 존재 양식에 합당하다고 간주되어 할당되고 분할된 말을 거부하고 타자들(부르주아들, 학자들, 시인들)의 언어를 전유하여 저 담론 질서를 전복했던 ‘밤의 노동자들’이었다.<sup>2)</sup>

다시 말해, 1974년 『알뛰세르의 교훈』에서 과학적 마르크스주의와 이론적 실천이라는 개념을 비판하고 이와 단절한 이래 노동자들의 자생적 사유를 발견하기 위해 19세기 노동자 운동의 문서고를 탐독했던 랑시에르는, 『프롤레타리아의 밤(1981)』에서 ‘주체화’의 의미를 지배 매카니즘에 대한 노동자들의 비판적 각성이 아니라 이제까지 자신에게 부여된 피지배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사유에서 찾게 된다.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노동자에게- 고유한 사유’를 전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심지어 수준 높은 사유와 말을 전유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스스로를 말하는 존재, 사유하는 존재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후의 저술작업에서도 이 ‘밤의 말들’을 특정 노동자 집단의 사회경제적 동일성이나 문화적 동일성의 표현으로 파악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이 오히려 노동자의 현실에서 도출되는 노동자적 동일성과의 단절을 통해 형성되는 것임을 논증한다. 이렇게 ‘밤의 노동자들’이 새로운 의미망을 창출하는 과정을 랑시에르는 『역사의 이름들』에 와서 ‘주체화’라고 명명한다. 여기서 주체화라는 개념은 대중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며, 심지어 인민도 아닌 어떤 ‘주체 아닌 주체’가 주어진 말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이 자리를 바꿔가는 무제한의 역량을 지시한다. 1987년에서 1989년 사이의 세미나와 발표회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저술된 『역사의 이름들』은 랑시에르 자신의 이러한 역사/철학 연구를 바탕으로, 미슐레에서 브로텔에 이르는 일련의 역사가들을 다시 읽으면서 주체화의 글쓰기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그는 주체화를 수행하는 이단적인 말하기를 어떤 존재 양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정체성으로 환원해서 설명하려는 문제 설정을 비판한다. 주체화의 말하기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타자성을 그 어떤 동일성으로도 환원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글쓰기가 요청된다는 것이다.<sup>3)</sup>

『무지한 스승』은 노동자가 어떻게 스스로 앎과 해방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저술인 『프롤레타리아의 밤(1981)』과 이후 본격적인 정치와의 관계를

2) “『프롤레타리아들의 밤』에서 나는 노동자들이, 담론의 질서가 그들을 사회 질서 안에서 지적하던 그 자리를 문제 삼기 위해 타자들(부르주아, 지식인, 시인들)의 언어를 왜곡할 수 있었던 방식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전복은 노동자의 존재에 고유하게 속한다고 전제되던 말의 거부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이로부터 나는 더 일반적으로 담론의 할당과 사회적 할당의 관계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자크 랑시에르, “말들의 역사, 역사의 말들” 마르틴 피에르와 마르탱 드 라 수디에르와의 대담, 저널 Communications, no. 15, 1994)”, 『자크 랑시에르와의 대화』, 고양: 인간사랑, 2020, p.98.

3) 자크 랑시에르, 『역사의 이름들; 지식의 시학에 관한 에세이』, 안준범 옮김, 울력, 2011. 특히 창설적 이야기, 말하기의 자리, 이단적 역사? 장을 참조할 것.

친착한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1990)』, 1995년 『불화(1995)』 사이에서 이를 연결하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후의 대담에서도 그는 『프롤레타리아의 밤』 이후 “어떻게 지식들 간의 분할이 사회적 분할에 개입하는가? 특히 이 분할과 뭉(할당)이 문제가 되는 장소들과 담론의 계기들에 관심을 가졌다”<sup>4)</sup>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지한 스승』의 논의들은 랑시에르 사상에서 제시되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과 그 가능성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무지한 스승(1987)』이라는 텍스트는 누구나(아무나) 지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선언하는 책이거나 현실의 불평등한 교육을 비판하는데 의미가 놓여 있다기보다, 어떻게 지식들 간의 분할이나 담론의 맥락들이 사회적이고도 정치적인 권력의 분할에 관계하는지를 사유하고 드러내는데 초점이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랑시에르는 사회 질서 속에서 각자에게 분배된 자리와 기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다시 말해 정치적인 것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랑시에르의 저작 『무지한 스승』에 대한 연구와 의미부여는 주로 교육론의 관점에서 교육의 불평등 체계에 대한 비판적 논거나 지적 평등의 논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sup>5)</sup> 교육학 분야의 연구들은, 이제까지 앎을 전달하고 지성과 정신을 육성하는 교육의 일반론으로 받아들여져 온 설명의 방식이 ‘설명자의 질서’를 공고히 하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위계를 재생산하는 것이라는 이 책의 비판적 논지에 주목했기 때문이다.<sup>6)</sup> 물론 랑시에르 사상 전체에 대한 연구나 다른 텍스트에 대한 연구들은 철학과 미학 사회학 분야에서도 전개되었지만,<sup>7)</sup> 텍스트 『무지한 스승』에 대한 연구

4) 자크 랑시에르 지음, 박영옥 옮김, 『자크 랑시에르와의 대화』, 고양: 인간사랑, 2020, pp.98-99.

5) 이러한 논점의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Biesta, G. & Bingham, C. Jacques Rancière: Education, Truth, Emancipation. London & New York: Continuum. 2010; Biesta, Gert, “A New Logic of Emancipation: The Methodology of Jacques Rancière”, Educational Theory 60(1), 2010; Galloway, Sarah, “Reconsidering Emancipatory Education: Staging a Conversation between Paulo Freire and Jacques Rancière”, Educational Theory 62(2). 2012. 국내의 주요 연구로는 강성훈, “랑시에르의 교육학 비판”, 『교육철학연구』, 제35권 제1호, 2013; 목영해, “플레이리와 랑시에르의 해방교육론 비교”, 『교육철학연구』, 제34권 제4호, 2012; 정민승, “『무지한 스승』의 보편적 가르침”, 『교육비평』, 제27호, 2011 등이 있다.

6) 자크 랑시에르 지음, 양창렬 옮김, 『무지한 스승』, 궁리. 2008, p.13.

7) 국내 학계에서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미학 분야에서 40여편의 논문이 제출되었다. 김기수, “랑시에르의 ‘비판적 예술’에 관하여-예술적 전략의 문제를 중심으로”,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제83집 제1권, 2016. 김희영, “자율성을 벗어난 추상: 랑시에르의 미학의 정치에 대한 고찰”, 현대미술학회, 『현대미술학 논문집』, 제15권 2호, 2011; 김지영, “이미지와 주체”,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코키토』, 2012; 박민수, “정치와 미학 그리고 예술-랑시에르의 사상에 관하여”, 한국카프카학회, 『카프카연구』, 제27집, 2012; 이영주, “마르쿠제와 랑시에르의 정치미학에 관한 이론적 탐색”,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이론』, 제9집 4호, 2013; 진은영, “시와 정치: 미학적 아방가르드의 모델”, 한국비평학회, 『비평문학』, 제39호, 2011;

들은 대개 보편적 앎의 가능성과 교육의 문제로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랑시에르가 부르디외와 개진했던 교육불평등 문제에 대한 논쟁을 다루는 연구도 개진되었다.<sup>8)</sup> 랑시에르가 이 책에서 자코토의 생각을 본격적으로 재해석하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1980년대 프랑스 사회의 교육 논쟁이 자리 잡고 있다. 랑시에르는 이 논쟁이 교육에 내재된 본질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외면한 채 방법의 문제에만 매달린다고 보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교육의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했던 것이다.<sup>9)</sup>

주형일에 따르면, 무엇보다 1980년대 프랑스의 교육 논쟁을 이끌었던 화두는 부르디외에게서 나왔다. 부르디외(P. Bourdieu)는 파스롱(Jean-Claude Passeron)과 함께 1960년대부터 교육과 계급의 문제를 연구했다. 그들은 1964년 『상속자들』과 1970년 『재생산』에서 학교 교육과 계급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학교가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불평등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불평등을 재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이다.<sup>10)</sup> 이들은 학교가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으므로 학교 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반면 전통적 관점은 학교 개혁 자체가 오히려 불평등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지식의 보편적 전수를 통해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11)</sup>

그러나 랑시에르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하려는 관점이나 보편적 추상적 지식을 모두에게 동등하게 교육하려는 관점 모두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사이의 불평등을 기반으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가 보기에 학교를 사회와 무관하게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중립적 기구로 보는 전통적 관점과, 사회구조가 반영되는 불평등한 기구로

---

진은영, “승고의 윤리에서 미학의 정치로”,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철학』, 제20권 3호, 2009; 진은영, “감각적인 것의 분배”, 『창작과비평』, 142호, 창작과비평사, 2008.

8) Pelletier, Caroline. “Emancipation, Equality and Education: Rancière’s Critique of Bourdieu and the Question of Performativity”, *Discourse: Studies in the Cultural Politics of Education* 30(2), 2009. 국내 연구로는 주형일,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2012; 주형일, “랑시에르의 해방된 대중과 지식인”, 『언론과사회』, 제21권 1호, 2013를 들 수 있다.

9) 주형일,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2012, p.208.

10) 주형일, 앞의 책(2012), pp.208-209.

11) 1981년 프랑스 사회당이 집권하고 사회당 정부는 부르디외와 파스롱의 주장에 근거해 학교 교육을 개혁한다. 그 교육정책은 학교에서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상층계급 아이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고급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을 줄이고 전문 지식 교육보다 친화적인 교육에 중점을 둔다. 사회적 소외계층 아이들이 손쉽게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층계급이나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해주면서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뛰어넘는 지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해 평등이란 이름으로 불평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사회당 교육정책은 논쟁에 휩싸였고 그 논쟁 속에서 1984년 밀네르(Jean-Claude Milner)는 『학교에 대하여』를 출간하였다. 밀네르에 따르면, 학교는 무엇보다 지식을 전수하는 장소이며, 따라서 가르치는 선생과 배우는 학생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확고히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형일, 앞의 책(2012), pp.210-211.

보는 비판적 관점 모두 불평등을 출발점으로 보고 평등을 달성할 목표로 본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한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모르는 자는 항상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자에게 교육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전통적인 교육이든 비판적 교육 개혁이든 교육에서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사이의 평등은 결코 도래될 수 없다. 과연 이러한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랑시에르의 물음이 자코토(J. Jacotot)의 보편적 가르침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던 또 다른 배경이었던 것이다.

기존 연구의 초점과 달리, 이 글은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이 『프롤레타리아의 밤(1981)』과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1990)』 사이에 놓여있는 텍스트로서 반드시 그의 정치사회적, 정치철학적인 관점을 통해 그 의미와 함축이 해석될 수 있다고 바라본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이 글은 랑시에르가 이 책에서 앎의 평등을 서술하는 방식과 관점에 주목하고 이를 그의 정치적인 관념과 관련하여 재해석함으로써, 그가 안다는 것/모른다는 것과 가르치는 것/배우는 것의 관계를 어떻게 전복시켜 스스로의 행위 속에서 자유를 기입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화의 개념으로 연결해왔던 것인지를 구명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그간 주로 교육론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왔던 앎의 주체와 정치적 주체와의 관련에 대한 설명을 보다 정치철학적인 방식으로 논증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 과정에서 교육학 분야에서 제출된 해석들이 가했던 몇 가지 오해나 불충분한 설명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랑시에르가 철학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이해해 볼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작업은 랑시에르의 전체 저술에서 『프롤레타리아의 밤(1981)』과 『무지한 스승(1987)』,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치적 개념이 등장하는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1990)』 사이의 연결성 속에서 『무지한 스승』의 의미를 이해해보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앎의 보편적 가능성과 주체의 문제

### 1. 우리는 어떻게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가? — 『무지한 스승』의 물음이 사유의 역사에 던지는 의미

랑시에르는 조제프 자코토(Jean-Joseph Jacotot: 1770~1840)의 ‘우연한 실험expérience’<sup>12)</sup>

12) 랑시에르는 기존의 교육 체계를 언급할 때에는 교육, 교육자, 교과 등 education 혹은 instruction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자코토의 그것은 주로 자코토의 지적 모험 혹은 실험, 행위, 실천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무지한 스승의 영역자는 역자 서문에서 expérience를 경험이 아니라 실험이라 번역했음을 밝히고 있다. 자코토가 expérience와 대비되는 단어로 귀결을 뜻하는 résultat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영어본 p.xix.

에 주목하며 『무지한 스승』의 화두를 출발한다. 그가 『무지한 스승』의 주요 전거가 되는 자코토(J. Jacotot)를 발견한 것은 19세기 노동자들의 글을 읽을 때였다. 1830년대에 아이들을 자코토에게 보내 글을 배우게 했던 노동자들의 이야기와 자코토의 방법을 이용해 집에서 자식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자무식 어머니의 모습을 접하며 자코토의 ‘지적 모험’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sup>13)</sup>

자코토는 프랑스 혁명 후 부르봉 왕조가 복귀하자 네덜란드령 벨기에에 망명하여 루벵 대학에 불문학 담당 외국인 강사로 임명되었는데,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게 되었지만 정작 자신은 네덜란드어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학생들은 프랑스어를 전혀 몰랐으며, 자코토는 네덜란드어를 전혀 모른 채 수업이 진행되었다. 자코토는 당시 브뤼셀에서 출간된 『텔레마코스의 모험』이라는 책의 프랑스-네덜란드어 대역본을 텍스트로 삼아 프랑스어 문법 기초에 대한 설명도 없이 학생들로 하여금 이 책으로 프랑스어를 깨우치게 하는 실험을 시도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랑시에르의 화두는 무엇보다 앎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가? 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철학의 고전적 명제와 마주한다. 앎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인간 정신의 변화와 실천가능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전통적인 철학적 논의들, 특히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양 정신사의 거대한 뿌리가 되어왔던 플라톤 철학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랑시에르는 이 책에서 플라톤 철학에 내포되어있는 one-many일자와 다자의 구분, knowledge - opinion의 구분, 진리와 의견의 구분, 보편성-개별성의 구분을, 그리고 앎의 보편성과 동일성을 지속적으로 전복하며 해체한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 두 계기들 간의 경계를 넘고 그 경계를 변화시켜내는 원인이나 주체를 설명할 수 없다. 그는 ‘전체는 전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경계를 변화시킬 우연한 ‘의지’를 가진 ‘아무나’라는 주체가 등장한다.<sup>15)</sup>

그가 보기에 플라톤 철학의 전통은 근대에 와서도 여전히 반복된다. 그러므로 이 책은 고전 철학의 명제에 대한 반론이자 동시에, 지식인/대중 혹은 엘리트/다중을 구분했던 흙(D. Hume) 이래 자유주의 철학은 말할 것도 없이,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맑스주의자이

13)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2008), pp.268-269.

14) 실제로 이 책에는 플라톤의 『메노』, 『파이드로스』 등 인식, 이해, 앎에 대한 그의 대화편들이 자주 등장하며 철인왕 혹은 동굴의 비유를 빗대어 빛(illumination)에 대한 비유가 빈번히 사용된다.

15) 랑시에르는 책의 서두에서 자코토가 이와 같은 가르침을 하게 된 것이 (필연이 아닌) 우연이라 이야기한다. 이는 플라톤 철학에 근본적 계기인 ‘필연성’ 개념과 대비된다. 자코토의 실험이 우연적으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특정한 계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의 언명은 어떤 행위와 변화 필연적인 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맥락들의 (우연한) 마주침에 의한 귀결이자 효과임을 의미한다.

자 진보적인 정치철학으로 평가되었던 알튀세르(L. Althusser)의 과학/이데올로기 구분에 대한 반론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무지한 스승』은 1974년 『알튀세르의 교훈』의 연장선에 있다.<sup>16)</sup> 또한 알튀세르와의 결별 후 19세기 노동자들의 말과 사유를 추적했던 1975년 『노동자의 말, 1830/1851』과 1981년 『프롤레타리아트의 밤』의 연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81년 저작이 역사적으로 물음에 답하고자 했다면 1987년 이 책에서는 그 사유의 방식에 함축되어 있는 담론의 질서와 권력에 대해 묻고 있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삶의 가능성에 대한 지식인/대중이라는 근대 철학의 위계와 구분은 플라톤 철학의 진리/역견이라는 바보 만들기 명제에서 ‘개선된’, ‘진보된’ 바보 만들기 일 뿐이다. 데카르트에서 알튀세르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자유주의든 맑스주의든 모두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이러한 구분은 이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어떤 무엇도 만들어내지 못하며, 그리하여 인간 스스로의 해방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sup>17)</sup>

그러므로 이 책이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체계에 예속된 노동자는 어떻게 스스로 해방된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그것이다. 랑시에르는 이 책에서 이제까지의 교육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거리를 전제함으로써 삶의 위계를 통해 사회의 위계를 재생산해 왔다고 비판한다.<sup>18)</sup> 그는 이를 ‘설명자의 체계’로 이름 붙이고 비판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력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의식을 육성시키는 체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sup>19)</sup> 그러므로 이 책의 물음은 단순히 삶의 문제나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와 위계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권력의 문제에 다름 아니며, 우리가 어떻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가의 물음을 인식의 가능성과 지식의 육성이라는 교육과 설명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대한 반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무지한 스승』의 원전을 통해 이러한 의미를 검토하고 드러낼 것이다.

16) 알튀세르와 랑시에르의 관계 및 랑시에르가 1970년대 중반 『알튀세르의 교훈』을 통해 그와 결별하고 독자적인 행보를 걷는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박기순, “알튀세르와 랑시에르”, 진태원 엮음, 『알튀세르 효과』, 그린비, 2011. 참조.

17) Rancière, Jacques, *Althusser's Lesson*, trans. Emiliano Battista,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2011. pp.76-79.

18) 지식을 가진 자의 가르침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아직 이해하지 못한) 자의 배움 안에는 지식(knowledge)과 역견(opinion)의 이분법, 그리하여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이분법이 함축되어 있다.

19) 여기에서 그가 언급하고 있는 체계는 단순히 학교라는 제도에서 행해지는 교육체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옳다고 믿는 척도와 기준에 대한 사유와 담론의 질서이자 체계를 뜻한다.



## 2. 설명자의 질서에 대한 비판 — 아는 자의 설명은 누구에게, 무엇에 쓸모 있었는가?

랑시에르는 이제까지 앎을 전달하고 지성과 정신을 육성하는 교육의 일반론으로 받아들여져 온 ‘설명’의 방식이 ‘설명자의 질서’를 공고히 하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위계를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sup>20)</sup> 만일 어떻게 지금 모르는 자가 알 수 있게 되는가의 문제가 단순히 지식을 가진 자의 설명을 통해 이해되는 것이라면, 이의 귀결은 앎의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앎의 고착화라는 것이다. 아는 자는 (항상) 알며 모르는 자는 (언제나) 모르기에 배워야 하는 구분은 현실에서 어떠한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 낼 수 없는 동어반복일 뿐이기 때문이다.<sup>21)</sup>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질문을 던진다; “스승의(아는 자의) 설명은 누구에게, 무엇에 쓸모 있었는가?”가 그것이다.

“자코토(J. Jacotot)는 그의 ‘학생들’에게 프랑스어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심지어 철자법과 동사 변화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아는 단어에 상응하는 프랑스 단어와 그 단어들 이미 변화하는 이치를 혼자서 찾아냈다. 그들은 혼자서 단어들을 조합하여 프랑스어 문장을 만드는 법을 익혔다. 학생들이 문장에 쓰는 철자법과 문법도 책을 읽어 나가면서 점점 더 정확해졌다. 더구나 그들이 구사하는 문장은 초등학생 수준이 아니라 작가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스승의 설명은 쓸데없는 것이었나? 설명이 쓸데 없지 않았다면, 그 설명은 누구에게, 무엇에 쓸모가 있었는가?”<sup>22)</sup>

그에 따르면, 설명의 논리는 무한 퇴행의 원리를 내포한다고 지적된다. “설명자가 가진 독특한 기술인 **거리**의 기술이다. 스승의 비밀은 가르친 교과와 지도해야 하는 주체 사이의 거리를 식별할 줄 아는데 있다. 그것은 또한 배우는 것과 이해하는 것 사이의 거리를

20) “모든 교육체계가 당연히 하는 이 논리는 몇 가지 모호함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여기 학생의 손에 책이 들려 있다고 치자. 이 책은 학생이 어떤 교과를 이해하게끔 하기 위한 일련의 추론들로 짜여 있다. 이제 스승은 그 책을 설명하기 위해 말을 시작한다. 그는 그 책에 짜여 있는 일련의 추론들을 설명하기 위해 일련의 추론을 한다. 그러나 왜 그 책에 그런 도움이 필요할까?... 설명 아이가 그 추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치자. 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설명해주면 왜 그 아이는 그 추론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걸까?...이런 경우 그 추론들을 이해하는 방식을 또다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2008), p.16.

21) 이는 ‘권리를 가진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던 아렌트(H. Arendt)의 ‘권리’ 개념에 대해 발리바르(E. Balibar)가 지지를 보낸데 반해 랑시에르는 아렌트를 비롯한 이제까지의 권리 개념이 ‘권리를 가진 자들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 비판했던 맥락도 이와 같다. 권리를 가진 자들의 권리란 사실상 권리의 아무런 경계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말이라는 것이다. 진태원, “무정부주의적 시민성?—한나 아렌트, 자크 랑시에르, 에티엔 발리바르”, 『서강인문논총』, 37집, 2013. 참조.

22)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2008), p.14.

식별하는 것이기도 하다. 설명자는 거리를 설정하고 없애는 자다. 그는 자신의 말 속에서 그 거리를 펼치고 줄인다”<sup>23)</sup>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학의 신화는 세계를 둘로 분할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해, 교육학의 신화는 지능을 둘로-열등한 지능과 우월한 지능으로-분할한다. 이것이 자코토가 말하는 ‘바보 만들기(abrutissement)’이다.”<sup>24)</sup>

반면, 자코토의 우연한 실험이 가져다 준 교훈은 그의 학생들이 설명의 도움 없이도 프랑스어로 말하고 쓰는 것을 스스로 익혔다는 사실이다. 랑시에르는, ‘설명’을 통한 가르침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우연히 익힌 여러 가지 일들, 별 의식 없이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 배운 것들이 사실은 배움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한다.<sup>25)</sup> 나아가 앎과 배움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논의된다. “(자코토의) 혁명적 경험을 통해, 플랑드르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이 우연의 방법은 그 두 번째 비밀을 깨닫게 해 주었다. **평등의 방법은 먼저 의지의 방법이라는 점이다.** 사람은 배우고자 할 때 자기 자신의 욕망의 긴장이나 상황의 강제 덕분에 -설명해주는 스승 없이도- 혼자 배울 수 있다.”<sup>26)</sup> 앎의 차이는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의지(volonté/volition)’의 차이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설명자가 가진 체계의 논리를 허구와 신화로 비판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바로잡기 위해 설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무능력이란 설명자의 세계관이 지어내는 허구이다.** 설명자가 무능한 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그 반대가 아니다. 즉 설명자가 무능한 자를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먼저 상대가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음을 그에게 증명하는 것이다. 교육자의 행위이기에 앞서, **설명은 교육학이 만든 신화다.** 그것은 유식한 정신과 무지한 정신, 성숙한 정신과 미숙한 정신,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 똑똑한 자와 바보 같은 자로 분할되어있는 세계의 우화인 것이다.”<sup>27)</sup>

따라서 랑시에르에게 ‘해방’이란, 예측을 만들어내고 재생산하는 설명자가 가진 체계의 논리를 뒤집는 것으로 제시된다. 앎과 무지의 거리,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거리를 깨트리고 전복시키는 실천인 것이다. 그는 『무지한 스승』을 통해 평등 개념을 재정의 하

23)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2008), p.17. 바보만들기(abrutissement)를 하는 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식을 주입하는 늘어빠진 둔한 스승이 아니다. 하물며 자신의 권력과 사회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중의 진리를 실천하는 사악한 존재도 아니다. 반대로 그는 유식할수록, 눈이 뜨였을수록, 선의를 가졌을수록 더 효과 있다. 그가 유식하면 유식할수록, 그가 아는 것과 무지한 자들의 무지 사이의 거리는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p.21.

24)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2008), p.20.

25) 랑시에르의 ‘보편적 가르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정민승, “『무지한 스승』의 보편적 가르침”, 『교육비평』, 제27호, 2011. pp.175-180 참조.

26)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2008), p.29.

27)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2008), p.19.

고 ‘해방이 모든 인간이 자기가 가진 지적 주체로서의 본성을 의식하는 일’<sup>28)</sup>임을 역설한다. 그에게 ‘해방’이란 계급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개인이 스스로를 평등한 자로서 ‘주체화’하는 일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알튀세르의 ‘이론적 실천’ 개념과 이를 통한 해방 전략에 반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기순은 알튀세르로부터의 결별이 1968년 5월을 기점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파리 8대학의 철학과 창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29)</sup> 철학과 교육 프로그램을 둘러싼 갈등을 매개로 랑시에르는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 알튀세르주의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교육’이라는 문제가 그 발단을 제공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랑시에르가 교육이라는 문제와 정치라는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사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무지한 스승』을 통해 랑시에르는 해방의 문제가 평등을 향한 해방이 아니라 평등을 통한 해방이며 평등을 발현해가는 과정으로 더욱 명료히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평등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우리들 누구에게나 있는 전제이며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이는 이후 1990년 발표된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1995년 『불화』에서의 평등 개념, 정치적인 것과 민주주의 개념의 철학적 전제가 되는 것이다.

### 3. 해방하는 스승: 의지의 촉발자로서 스승의 의미

앞선 절에서 논의되었듯, 그는 사람이 배우고자 할 때 자기 자신의 욕망의 긴장이나 상황의 강제 덕분에 -설명해주는 스승 없이도- 혼자 배울 수 있으며 이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코토의 실험에서 학생들은 스승 없이 배운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랑시에르는 “학생들은 설명하는 스승 없이도 배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어떤 스승도 없이 배운 것은 아니다...자코토는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쳤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어떤 학식도 전달하지 않았다. 학생이 배운 것은 스승의 학식이 아니었다. 자코토가 스승이었던 까닭은 그가 그의 학생들을 그들 혼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고리 안에 가둬두도록 명령했기 때문”<sup>30)</sup>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চে임버스(S. Chambers)는 만일 교사의 무지를 강조하는 랑시에르의 논의가 현행의 교수법에 대한 비판에 불과했다면 이 책의 제목은 ‘바보를 만드는 스승’이

28)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2008), p.77.

29) 박기순, 앞의 논문(2011), p.701.

30)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2008), p.30.

되었을 것이라 지적한다. 지능의 평등 혹은 교사의 무지를 강조하는 랑시에르의 논의가 가르침 혹은 교육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sup>31)</sup> 오히려 자코토는 자신이 (진리를, 참된 것을,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바보를 만들지 않고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02년 6월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한 강연에서 랑시에르는 ‘무지한 스승le maitre ignorant’<sup>32)</sup>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첫째, 무지한 스승<sup>33)</sup>은 학생에게 가르칠 것을 ‘알지 못하는 스승’이다. 둘째, 무지한 스승은 어떤 앎도 전달하지 않으면서 다른 앎의 원인이 되는 스승이다. 셋째, 무지한 스승은 불평등을 축소하는 수단들을 조정한다고 여겨지는 불평등에 대한 앎을 ‘모르는 스승’이다.”<sup>34)</sup>

그렇다면,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스승의 전범이기도 했던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어떨까? 너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알라는 언명을 던졌던 소크라테스에 대해 랑시에르는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이야기한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메논Menon의 노예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수학적 진리들을 깨닫게 만든다. 그러나 거기에는 앎의 길이 있을지언정 결코 해방의 길은 없다. 소크라테스는 노예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한다. 노예의 앎을 증명하는 것은 그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노예는 결코 혼자 걸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스승의 교훈을 예증하기 위한 때가 아니면 아무도 그에게 걸으라고 주문하지도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안에서 노예로 남아있도록 운명지어진 노예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sup>35)</sup>

모든 유식한 스승처럼 소크라테스 또한 지도하기 위해 질문한다는 비판이다. 인간을 해

31) “랑시에르가 교사나 가르침이라는 발상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놀랍게도 그는 스승이나 우위mastery를 위한 자리를 인정하기 까지 한다.” Chambers, Samuel A., *The Lessons of Rancière*,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랑시에르의 교훈』, 김성준 옮김, 그린비, 2019, p.94.

32) ignorant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 『무지한 스승』을 옮긴 양창렬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스승이라는 단어와의 역설적 결합을 강조하기 위해 ‘유식한savant’의 반대어인 ignorant를 ‘무지한’으로 번역했으며, 그 명사형인 ignorance는 ‘학식science’의 반대 개념으로 ‘무지’라고 번역했다는 것이다. 양창렬, 역주 19) p.39 참조.

33) 한편, 강성훈은 ‘Maire’를 한국어 국역본이 스승이라 번역하는데 대해, Maire가 랑시에르에게 긍정적 의미의 용어로 쓰이지 않았기에 ‘무지한 스승’이 아니라 ‘무지한 교육자’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텍스트에 대한 편협한 해석이다. 강성훈, “랑시에르의 교육학 비판”, 『교육철학연구』, 제35권 제1호, 2013, p.1. 각주 1) 참조.

34)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2008), p.33

35)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2008), p.65.

방하고자 하는 자는 인간의 방식으로 상대에게 질문해야지 식자의 방식으로 질문해서는 안 되며, 지도받기 위해서 질문해야지 지도하기 위해서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36)</sup> 그러므로 자신이 무지하다는, 그리하여 일정한 질서를 진리나 정답으로 혼용할 수 없다는 깨달음에 바탕하여 가르치는 자에게 스승의 가능성과 의미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7)</sup>

그러한 스승은 어떻게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가?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오직 우리가 모르는 것 전체에 질문하는 것이다. ‘전체는 전체 안에 있다’<sup>38)</sup>는 그의 언명은 위와 같은 랑시에르의 생각을 잘 드러내준다.<sup>39)</sup>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학식도 필요치 않다.<sup>40)</sup> 무지한 자는 무엇이든 물을 수 있다. 오로지 그의 질문들만이 기호의 나라로 가는 여행자에게 그의 지능을 자율적으로 발휘하도록 강제하는 진정한 질문들일 것이다.<sup>41)</sup>

랑시에르에 따르면, 자코토는 우연히 『텔레마코스의 모험』을 손에 쥐게 되었고 그 책을 학생들에게 읽혔다. “보편적 가르침의 첫 번째 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무언가를 배우라. 그리고 그것을 나머지 모든 것과 연결하라. 그러니 먼저 무언가를<sup>42)</sup> 배워야 한다.”<sup>43)</sup> 다시 말해, ‘어떤 것’과 반대는 ‘아무것이나’를 가리킨다.<sup>44)</sup> “보편적 가르침에는 어떤 특정한 책이 필수불가결할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나는 성찰로 가득 찬 책보다는 잘 쓰인 이야기에서 언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J. Jacotot 1841, 24)”<sup>45)</sup> 이는

36) 그러한 의미에서 “학생보다 실제로 많이 알지 못하는 자, 결코 학생보다 앞서 여행을 하지 않은 자, 즉 무지한 스승만이 인간을 해방할 수 있을 것이다.”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2008), pp.65-66.

37) 다음의 언명은 이를 잘 나타내준다. “스승이란 자의적인 고리 안에서 지능을 가두어두는 자다...무지한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해방되어야만 하고, 또 그렇게 되기만 하면 된다.”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2008), p.34.

38) “역량은 분할되지 않는다. 보고 말하고, 우리가 본 것과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하나의 힘만 있다. 우리는 문장을 익히고 또 익힌다. 우리는 사실, 다시 말해 사물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또 모두가 같은 성질의 것인 또 다른 관계들을 발견한다. 우리는 문자, 단어, 문장, 관념을 조합하는 것을 배운다...우리는 우리가 학식을 익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거나 우리가 천체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적 질서 속에서 한 명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전체가 전체 안에 있다는 말이 뜻하는 바다.”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2008), p.58.

39) 『텔레마코스의 모험』이라는 한 권의 책 안에는 우리가 모든 책, 모든 언어에서 보고 읽을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것들을 연관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 다시 말해, 전체 속의 임의의 점, 어느 한 책에서 출발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40) ‘모든 것은 모든 것 안에 있다’는 언명은 평등의 역량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나타나있다.

41)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2008), p.67.

42) ‘무언가’는 ‘어떤 특정한 것’과 반대로 ‘아무거나’를 가리킨다.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2008), p.48 옮긴이 주 참조.

43)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2008), p.48. pp.41-42.

44) 그가 ‘그 책 혹은 『텔레마코스의 모험』 또는 다른 책’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보면, 그에게 보편적 가르침은 어디에서나 아무 곳에서나 출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얇의 행위 개념을 우발적 실천<sup>46)</sup>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또한 그가 얇의 가능성을 지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지에 의해 발생하고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바라보았다는 앞서의 검토를 환기한다면, 스승이란 학생들로 하여금 배울 수 있는 환경과 맥락, 구조를 만들어내면서도 학생들이 자신이 알고 있던(사회로부터 교육받았던) 지식과 질서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알고자 하는 의지를 촉발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47)</sup>

### Ⅲ. 우연과 의지, 변화와 실천 과정으로서의 얇과 정치적 주체 - 결론을 대신하여

이 연구는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에 대한 기존의 학문적 논의들이 주로 교육학 분야에서 제출된데 대해 물음을 제기하고, 이 텍스트가 가지는 의미를 정치적 주체형성의 문제로 재해석 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글은 『무지한 스승(1987)』이 『프로레타리아의 밤(1981)』과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1990)』 사이에서 이를 연결하는 텍스트로 바라보고, 그들 사이의 관련성 속에서 그 의미를 구명해보고자 했다.

랑시에르는 이제까지 얇을 전달하고 지성과 정신을 육성하는 교육의 일반론으로 받아들여져 온 ‘설명’의 방식이 ‘설명자의 질서(the explicative order)’를 공고히 하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위계를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만일 어떻게 지금 모르는 자가 알 수 있게 되는가의 문제가 단순히 지식을 가진 자의 설명을 통해 이해되는 것이라면, 이의 귀결은 얇의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얇의 고착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교육 체계와 방식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거리를 전제함으로써 얇의 위계를 통해 사회의 위계를 재생산해 왔다고 비판된다. 그러한 생각을 통해 구축되어 온 설명자의 체계는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력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의식을 육성시키는 체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지한 스승』은 우리가 어떻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가의 물음을 인식의 가능성과 지식의 육성이라는 교육과 설

45) 자크 랑시에르, 얇의 책(2008), p.49.

46) “출발점의 이론적 차이는 지적해방을 결정하는 연결점을 이런저런 것으로 하는 우발적 실천들에 맡긴다. 아무 사물이나 글로 구성할 수 있고, 아무 글이나 교과서로 구성할 수 있는자가 해방되는 것이다(Rancière 1984, 38)”

47) “스승이란 구하는 자가 그의 길을 계속 가도록 하는 자이다. 그 길에서 구하는 자는 혼자 구해야 하며 구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자크 랑시에르, 얇의 책(2008), p.72.

명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대한 반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의 화두는 단순히 삶의 문제나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의 질서와 위계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담론의 질서이자 감성의 분할의 주체를 다루는 1990년대 저술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지한 스승』에서 그는 삶의 과정을 누구나(아무나) 스스로가 마주친 우연하고도 특별한 역사적 사회적 국면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실천의 행위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삶의 가능성을 지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지’에 의해 발생하고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sup>48)</sup> 그러한 맥락에서 삶의 해방이란 평등을 향한 해방이 아니라 평등을 통한 해방이며 평등을 발현해가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고는 평등이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우리들 누구에게나 있는 전제이며 출발점이 된다는 이후의 저술에 연결된다. 이는 이후 1990년 발표된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1995년 『불화』에서의 평등 개념, 정치적인 것, 민주주의 개념의 철학적 전제가 된다.

그리고 『무지한 스승』에서 개진된 ‘설명자의 질서’에 대한 비판과 전복은 현 사회의 정치 혹은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질서를 수호하는 ‘치안’에 불과하다는 이후의 비판과 깊이 연결된다.<sup>49)</sup>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혹은 『민주주의란 왜 증오의 대상인가?』에서 민주주의란 어떤 고정된 정치 형식이거나 통치 형태의 일종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며 평범한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실현할 행동양식을 발견할 수 있는 역량이자 그러한 잠재성을 향한 끊임없는 과정으로 논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뭉치 없는 자들이 기존의 척도와 가치, 분할을 재구성하며 뭉치를 기입해가는 ‘주체화’의 과정도 이해될 수 있다.

만일 이와 달리, 기존의 몇몇 논의에서처럼 지적으로 평등한 주체라는 전제나 귀결에 이 책의 초점을 둔다면, 이는 랑시에르 사상에서 주체의 문제를 -이후의 저술에서 그가 계속 강조하는 ‘주체화’의 의미가 아니라- 다시금 존재론적으로 개념화하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에게 개진되는 보편적 가르침의 가능성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만일 이 책의 의미가 단순히 ‘모든 사람은 동등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된다면, 이는 마치 플라톤이 『Menon』에서 논증했

48) 여기서 랑시에르의 ‘의지’ 개념이 루소(J. J. Rousseau)의 그것이나 니체(F. Nietzsche)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또 그의 우발적 실천, 우연한 마주침의 개념이 데리다(J. Derrida)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의 문제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제이며 차후에 또 다른 지면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49) 현대 사회가 민주주의의 정치라고 명명하는 체제가 그 사회의 경계/척도/질서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지 치안(*la police*)에 불과하다는 그의 비판적 논의도 이와 연결되어 있다. 자크 랑시에르,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허경 옮김, 인간사랑, 2011.

듯, 사람은 앎의 가능성에서 모두 평등한 존재라는 의미와 유사한 의미가 되어버린다. 이미 이 글 본론 2장 3절에서 검토한 것처럼 랑시에르는 존재론적인 가정을 전적으로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알게 될 가능성과 관련하여 소크라테스의 그것과 자신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하고 있었다.<sup>50)</sup>

랑시에르는 인간 주체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으로부터도 정치를 도출해 낼 수 없다고 보며 주체를 존재론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sup>51)</sup> 그에게 주체는 정초할 어떤 존재론적 기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임버스(S. Chambers)는 주체화에 대한 랑시에르의 진술을 특정한 정치적 기획을 수립하기 위한 철학적 기반으로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정초할 어떠한 기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그곳에는 그곳이 없다—there is no there— 그의 주장 앞에서 좌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52)</sup> 그러한 의미에서 랑시에르는 ‘주체화’가 언제나 탈정체화이며 탈정체화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은 랑시에르 자신에게도 나름대로 문제를 초래하는 역설적인 부분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sup>53)</sup> 왜냐하면 랑시에르는 랑시에르와 갈라서지 않고는 ‘랑시에르를 따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sup>54)</sup> 다음의 언명도 이러한 역설을 잘 나타내준다. “우리는 민주주의 안에서 살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유일한 대안으로서 치안질서 안에서 살아간다”<sup>55)</sup>

50)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메논Menon의 노예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수학적 진리들을 깨닫게 만든다. 그러나 거기에는 앎의 길이 있을지언정 결코 해방의 길은 없다. 소크라테스는 노예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한다. 노예의 앎을 증명하는 것은 그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노예는 결코 혼자 걸을 수 없을 것이다.”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2008), p.65.

51) “우리는 존재의 이론으로부터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어떠한 것도 연역해 낼 수 없다. Rancière, Jacques, “A Few Remarks on the Method of Jacques Rancière”, Parallax, 15(3), 2009, p.117.

52) Chambers, Samuel A., The Lessons of Rancière,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랑시에르의 교훈』, 김성준 옮김, 그린비, 2019, p.68.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체임버스(S. Chambers)는 랑시에르에게 정치적 주체는 정치의 담지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주체는 정치의 방식으로만, 정치를 통해서만, 그리고 정치 이후에만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 지적한다. S. Chambers, 앞의 책, p.69.

53) Ieven, Bram, “Heteroreductives: Rancière’s Disagreement with Ontology”, Parallax, 15(3), 2009, pp.61. 또한 이와 관련하여, 메이는 이러한 주장이 언젠가 도래할 민주주의에 대한 유토피아적 요청으로 이해하는 반면, 체임버스는 이것이 우리가 성취해야만 하는 것을 결코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라거나 우리가 무언가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랑시에르에게 민주주의란 결코 그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즉 민주주의가 하나의 체제나 질서 혹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데 그 핵심이 있다는 것이다. May, Todd, The Political Thought of Jacques Rancière: Creating Equalit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8; Chambers, Samuel, Ibid, p.216.; Samuel A. Chambers, The Lessons of Rancière,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랑시에르의 교훈』 김성준 옮김, 그린비, 2019. 참조.

54) S. Chambers, 앞의 책, p.70 참조.

55) 자크 랑시에르,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허경 옮김, 인간사랑, 2011, p.73. 또한 맥락에서 랑시에르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협의’나 ‘합의’가 아니라 불일치(dissensus) 혹은 불화로 보고 있다 하겠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체화(subjectivation)는 언제나 탈정체화이며 탈정체화일 수밖에 없다’는 랑시에르의 주장이 곧 개인의 경험으로 환원되어 버리거나 추상적인 개인을 상정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에 이루어진 대담에서 랑시에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해방의 논리는 개인들 간의 관계만을 다룰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가 사회적이라고 부르는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말합니다. 무지한 자와 해방의 스승과의 관계를 나는 ‘개인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것도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논리의 형식이나 지성의 사용과 단절하는 관계입니다. 보통 지성은 그것의 우월성과 열등성을 스스로 증명하는데 전념합니다...자코토의 논리는 **중재와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에 의해 사회적 논리가 개인의 논리로 변형되는 방식이 중단됩니다. 개인들의 논리의 의미에서 개인적 논리들은 지배의 사회적 논리들을 영원히 재생산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지성으로 스스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 사건, 장치가 필요합니다. 즉 **개인이 사회적 논리의 ‘정상적’ 기능과의 관계에서 기능 장애 속에 놓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 개인적 변형은 둘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사회적 수준에서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해방된 자는 사회적 해방을 꿈꿀 수 있습니다. 혹은 아주 단순히 사회 안에서 더 나은 자리를 원할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해방의 형식들은 불평등이 집단적으로 실현되는 사유, 의식, 정치적 실천 등의 형식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 평등의 사회적 평등으로의 변형은 없습니다.”<sup>56)</sup>

물론 다른 저술들에서 나타나는 ‘주체화’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글의 검토를 통해 보았을 때, 『무지한 스승』에서 개진되었던 삶의 가능성 속에서 주체의 형성은 언제나 기성의 질서나 체계와의 우연한 부딪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에게 삶의 해방은 자신에게 우연히 부딪힌 사회적 논리들에 대한 반발 속에서, 또한 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고 꿈꾸려는 의지 안에서 움트며, 그러므로 언제나 당면 사회의 설명의 논리와 체계, 기성의 척도와 기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촉발되고 생성되며 작동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무지한 스승』은 정치적이다.

지식을 계몽의 과정으로 보는 관념은 우리 사회에 여전한 현실이다. 그러나 만일 랑시에르의 제안처럼, 교육적 실천이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과정이 아니라 자신이

56) 자크 랑시에르 지음, 박영옥 옮김, “『무지한 스승』의 시사성(안드레아 벤부네투, 로랑스 토르뉴, 파트리스 비르네렌과의 대담)”, 『자크 랑시에르와의 대화』 인간사랑, 2020, pp.562-563.

부딪힌 -우연적- 상황과 맥락에 함축되어 있는 관념과 질서, 기준과 척도에 대한 반발이라면, 그리고 나아가 그와 전혀 다른 질서와 관계에 대한 꿈이라면, 무지한 스승은 무엇보다 정치적 실천을 불러일으키는 자이다. 우리 사회의 후학들에게 필요한 스승은 스스로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도록 촉발하고, 삶의 도처에 함축되어 있는 기준과 척도, 즉 법과 질서와 가치를 거부하려는 그들의 의지와 용기를 격려하며, 다르게 살아보고픈 그들의 욕망을 새로운 가치로서 존중하고 격려하는 자임을 이 책은 말해주고 있다.

### 참고문헌

- 강성훈, “랑시에르의 교육학 비판”, 『교육철학연구』, 제35권 제1호, 2013.
- 김기수, “랑시에르의 ‘비판적 예술’에 관하여-예술적 전략의 문제를 중심으로”,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제83집 제1권, 2016.
- 김상운, “반란과 해방의 정치: 바디우와 랑시에르를 중심으로”
- \_\_\_\_\_, “평등의 차연 또는 민주주의와 타자: 랑시에르의 데리다 비판 재검토”
- 김지영, “이미지와 주체”,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코키토』, 2012.
- 김희영, “자율성을 벗어난 추상: 랑시에르의 미학의 정치에 대한 고찰”, 현대미술학회, 『현대미술학논문집』, 제15권 2호, 2011.
- 목영해, “프레이리와 랑시에르의 해방교육론 비교”, 『교육철학연구』, 제34권 제4호, 2012.
- 박기순, “랑시에르와 민중 개념: 민중에 대한 낭만주의적 해석과 그 대안의 모색”, 『진보평론』, 제59호, 2014년 봄호.
- \_\_\_\_\_, “알튀세르와 랑시에르”, 진태원 엮음, 『알튀세르 효과』, 서울: 그린비, 2011.
- 박민수, “정치와 미학 그리고 예술-랑시에르의 사상에 관하여”, 한국카프카학회, 『카프카연구』, 제27집, 2012.
- 박주원, “민주주의의 슬픔-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기억과전망』 통권44호, 2021.
- 양창렬, “자크 랑시에르: 제도도 이념도 아닌 민주주의론”, 『진보평론』, 제68호, 2016년 여름호.
- 이영주, “마르크제와 랑시에르의 정치미학에 관한 이론적 탐색”,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이론』 제9집 4호, 2013.
- 자크 랑시에르, “민주주의는 유효한가?”, 슬라보예 지젝, 알랭 바디우 외, 『아듀 데리다』 최용미 옮김, 인간사랑, 2013.
- \_\_\_\_\_, 『미학 안의 불편함』, 주형일 옮김, 인간사랑, 2008.
- \_\_\_\_\_, 『무지한 스승』, 양창렬 옮김, 궁리, 2008.
- \_\_\_\_\_,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옮김, 도서출판 길, 2008.
- \_\_\_\_\_, 『불화』, 진태원 옮김, 도서출판 길, 2015.
- \_\_\_\_\_,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허경 옮김, 인간사랑, 2011.
- \_\_\_\_\_, 『역사의 이름들; 지식의 시학에 관한 에세이』, 안준범 옮김, 울력, 2011.
- \_\_\_\_\_, 『프로레타리아의 밤』, 안준범 옮김, 문학동네, 2021.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 *Le Maitre Ignorant*』에 나타나는 삶과 해방의 가능성 그리고 정치적 주체의 문제 (박주원)

- \_\_\_\_\_, “말들의 역사, 역사의 말들”, 『자크 랑시에르와의 대화』, 인간사랑, 2020.
- \_\_\_\_\_, “『무지한 스승』의 시사성”, 『자크 랑시에르와의 대화』 인간사랑, 2020
- 정민승, “『무지한 스승』의 보편적 가르침”, 『교육비평』, 제27호, 2011.
- 주형일, “랑시에르의 해방된 대중과 지식인”, 『언론과사회』, 제21권 1호, 2013.
- \_\_\_\_\_,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2012.
- 진은영, “감각적인 것의 분배”, 『창작과비평』, 142호, 창작과비평사, 2008.
- \_\_\_\_\_, “승고의 윤리에서 미학의 정치로”,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철학』, 제20권 3호, 2009.
- \_\_\_\_\_, “시와 정치: 미학적 아방가르드의 모럴”, 한국비평문학회, 『비평문학』, 제39호, 2011.
- 진태원, “랑시에르와 발리바르: 어떤 민주주의?”, 『실천문학』, 110호, 2013.
- \_\_\_\_\_, “무정부주의적 시민성?-한나 아렌트, 자크 랑시에르, 에티엔 발리바르”, 『서강인문논총』, 37집, 2013.
- \_\_\_\_\_, 『알튀세르 효과』, 서울: 그린비, 2011.
- Badiou, Alain, “The Lessons of Jacques Rancière: knowledge and Power after the Storm”, eds. Philip Watts and Gabriel Rockhill, Jacques Rancière: History, Politics, Aesthetic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9.
- Balibar, Etienne, “Interview with Etienne Balibar”, eds. Beth Hinderliter et al., Communities of Sense: Rethinking Aesthetics and Politics, Duke Univ. press, 2009.
- Biesta, Gert, “A New Logic of Emancipation: The Methodology of Jacques Rancière”, Educational Theory 60(1), 2010.
- Biesta, G. & Bingham, C. Jacques Rancière: Education, Truth, Emancipation. London & New York: Continuum, 2010.
- Chambers, Samuel A., The Lessons of Rancière,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랑시에르의 교훈』, 김성준 옮김, 그린비, 2019.
- Citton, Yves, “Political Agency and the Ambivalence of the Sensible”, eds. Philip Watts and Gabriel Rockhill, Jacques Rancière: History, Politics, Aesthetic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9.
- Galloway, Sarah, “Reconsidering Emancipatory Education: Staging a Conversation between Paulo Freire and Jacques Rancière”, Educational Theory 62(2), 2012.
- Hallward, Peter, “Staging Equality: Rancière’s Theatrocracy and the Limits of Snarctic Equality”, eds. Philip Watts and Gabriel Rockhill, Jacques Rancière: History, Politics, Aesthetic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9.
- Halpern, Richard, “theater and Democratic Thought: Arendt to Rancière”, Critical Inquiry, 37(3), 2011.
- Ieven, Bram, “Heteroreductives: Rancière’s Disagreement with Ontology“, Parallax, 15(3). 2009.
- Laclau, Ernesto, “Ideology and Post-Marxism”,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11(2). 2006.
- May, Todd, The Political Thought of Jacques Rancière: Creating Equalit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8.
- Pelletier, Caroline, “Emancipation, Equality and Education: Rancière’s Critique of Bourdieu and

- the Question of Performativity”, *Discourse: Studies in the Cultural Politics of Education*, 30(2). 2009.
- Rancière, Jacques, “Who In the Subject of the Rights of Man?”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vol. 103, no. 2-3, 2004.
- \_\_\_\_\_, et al. “Democracy, Anarchism and Radical Politics Today: An Interview with Jacques Rancière”, *Anarchist Studies*, 16. 2, 2008.
- \_\_\_\_\_, *The Emancipated Spectator*, trans. Gregory Elliot, London and New York: Verso, 2009.
- \_\_\_\_\_, “A Few Remarks on the Method of Jacques Rancière”, *Parallax*, 15(3), 2009.
- \_\_\_\_\_, *Althusser’s Lesson*, trans. Emiliano Battista,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2011.
- Schaap, Andrew, “Enacting the Right to Have Rights: Jacques Rancière’s Critique of Hannah Arend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10(1), 2011.

【 Abstract 】

Revisiting 『*Le Maitre Ignorant*』 :  
Knowledge, Liberation, and the Political Subject

Joo-Won Park

This article is a careful investigation of Rancière's 『*Le Maitre Ignorant*』, which has been primarily discussed in the education literature for its academic understanding, to reinterpret his text as a problem of political subjectivation. This work demonstrates that building universal knowledge as described in 『*Le Maitre Ignorant*』 is not merely a part of epistemology but rather a practice of ‘volition’ that stems from contingent yet specific socio-political contexts and phases. In particular, this article proposes 『*Le Maitre Ignorant* (1987)』 as the theoretical bridge between 『*La nuit des prolétaires* (1981)』 and 『*Aux bords du politique* (1990)』, and elucidates its implication within this association.

A thorough review of 『*Le Maitre Ignorant*』 suggests that developing one's subjectivity within the capability of knowing is made possible in spontaneous conflicts with the existing order or systems. In other words, emancipation from knowledge arises in resistance to social norms that an individual stands against, with the volition to live and dream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and therefore can be triggered, built and run in the course of interacting to the current systems and contexts of the society. All these cues, in turn, involve 『*Le Maitre Ignorant*』 with political conversations.

Interpreting knowledge as a course of enlightenment hardly changes in a society. However, if, as Rancière suggests, the educational practice lies not in the process of knowing to pursue the universal truth but in resistance to the socially established notion, order, standards, and norms implied in the unforeseen situations and contexts that one encounters, and further in a dream of a completely different order and relation, ‘*Le Maitre Ignorant*’ is above all a person who invokes the political practice. The mentor to the younger generations of our society, as described in Rancière's book, must be someone

who guides them to speculate upon their lives again, encourages their volition and bravery to refuse the social norms pervasive in routines, such as law and order, and respects their desire to reshape their lives as a unique value.

**Key Words** : J. Rancière, *Le Maître Ignorant*, knowledge, emancipation, subjectivation, volition, contingent practice